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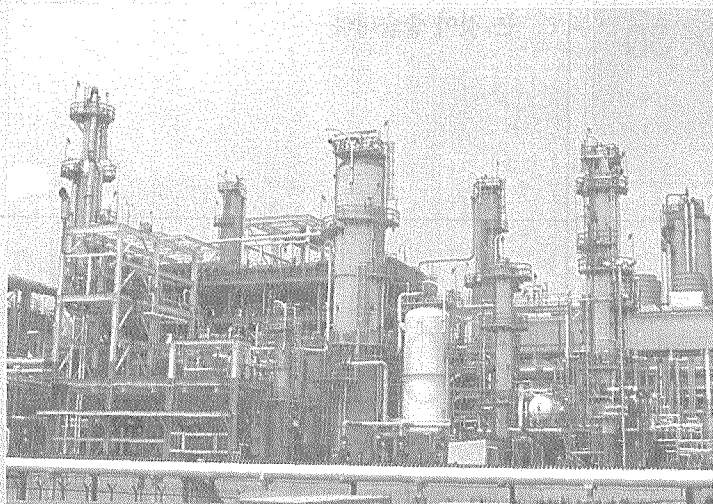
油公, 등·경유 탈황시설 가동 日産 3만5천배럴 규모

油公은 값싼 고유황 원유를 투입, 유황성분이 96% 이상 제거된 초저유황 등·유를 생산하는 일산 3만5천 배럴의 신규 등·경유 탈황시설(초저유황 등·경유 제조시설)의 시험가동에 성공, 지난 7월 9일부터 본격가동에 들어갔다.

날로 급증하는 저유황 등·경유 수요를 충족시키고 정부의 강력한 환경보호 정책과 청정에너지에 대한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90년 1월 8백여억원을 들여 공사에 착수한 이래 2년반만에 완공된 이번 등·경유 탈황시설은 상압증류공정에서 나온 고유황 등유와 경질가스유(LGO)를 촉매(코발트 폴리브덴, 니켈 폴리브덴)하에서 수소를 첨가, 반응시킴으로써 유황분, 질소등 각종 불순물을 제거하여 초저유황 등·경유를 생산하게 되는데 탈황율이 등유 96%, 경유 93%에 이른다.

油公은 이번 신규 등·경유 탈황시설 가동으로 고유황 원유 처리시 수입에 의존해야만 했던 저유황 등·경유를 수입하지 않게 되어 연간 4천만달러의 국제수지 개선 효과를 얻게 되며, 원유 도입처도 다변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폐가스 중 아황산가스를 촉매반응으로 액체유황으로 환원, 회수하는 일산 84톤 규모의 유황회수시설과 폐가스처리시설을 통해 대기오염도 크게 줄이게 되었다.

한편 '63년 국내최초로 등·경유 탈황시설을 가동했던 油公은 이번 신규 등·경유 탈황시설의 완공으로 하루 총 4만9천 배럴의 초저유황 등·경유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油公

선박엔진오일 개발

油公은 국내최초로 선박용 엔진오일의 자체 개발에 성공, 슈퍼마(Super-mar)로 명명하고 7월부터 시판에 들어갔다.

새로 개발된 선박용 엔진오일 슈퍼마시리즈는 지난 '86년부터 '91년까지 6년간의 연구와 제품테스트를 거쳐 개발된 것으로 선박용 엔진오일로서 갖춰야 할 요구 성능을 극대화하였으며, 특히 세계적인 선박엔진 메이커이며 승인 조건이 가장 까다로운 독일의 만(Man-B & W)사와 프랑스 펠스틱(Pielstic)사의 OEM 승인을 얻는 등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선박용 엔진오일은 장시간 가동으로 인한 열 발생과 염분, 수분과의 빈번한 접촉으로 가혹한 조건에서 최적의 기능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에 기유, 첨가제 선정, 배합 조건 등이 매우 까다로운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제품으로 엔진 종류에 따라 크로스헤드형의 시스템오일과 실린더오일, 트렁크피스톤형 엔진오일의 3종류로 크게 분류된다. 우리 회사는 이번에 새로 개발된 제품을 용도에 따라 슈퍼마 S와 AS(크로스헤드형 시스템오일), 슈퍼마 CYL 50과 CYL 70(크로스헤드형 실린더오일), 슈퍼마 13TP, 24TP, 30TP와 40TP(트렁크피스톤형 엔진오일)로 명명해 기존에 판매되어 온 외국 회사와의 합작제품과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油公

油公 아코단독경영

油公과 미국의 아코케미칼사가 50대 50의 합작비율로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유공아코화학 주식회사가 油公에 의해 단독경영이 이루어지게 되

었다.

이같은 결정은 미국의 아코사가 보유하고 있던 유공아코화학(주)의 지분을 1백퍼센트 우리회사가 취득하기로 잠정 합의함에 따른 것이다.

유공아코화학은 아코화학의 특허 기술을 이용하여 PO(Propylene Oxide)와 SM(Styrene Monomer)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지난 '87년 9월 설립된 이래 지난 '91년 1월부터 연산 10만톤의 PO와 22만5천톤의 SM, 그리고 PO(Propylene Glycol) 2만5천톤, PPO(Polypropylene Glycol) 2만톤을 각각 생산해 오고 있다.

아코사의 철수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아코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기술을 계속 사용하게 되며, 국내 및 해외 시장에서 양사간의 협력 관계 또한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油公

하계 휴양수운영

油公은 올해에도 임직원과 가족들에게 하계휴양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악산 및 울산 인근 지역, 제주 지역 등에 휴양소를 운영한다.

연중 운영중인 설악산의 그린빌라는 사원과 가족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계휴양에 적합한 시설 및 집기를 보완·개선하였으며, 울산인근 지역에는 지난해와 같이 진하 해수욕장에 대형 천막을 설치·운영하고 등역리에는 등나무산장을 임차하여 운영한다. 또한 제주도 함덕 해수욕장에도 천막·샤워장등을 설치하여 직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湖南精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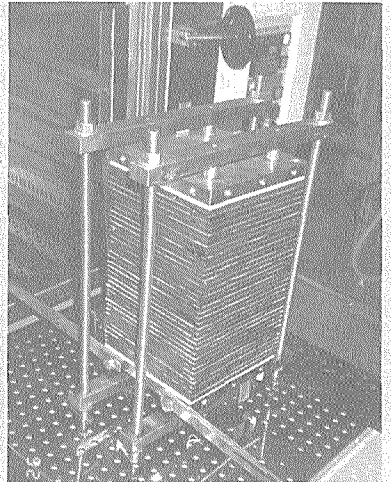
2/4분기 노사협의회 개최

2/4분기 湖油 노사협의회가 지난 6월 26일 사용자위원 6명, 근로자위

湖南精油 燃料電池 분야에서 개가

정부가 2천년대 세계일류 공업국으로 부상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G-7 계획의 일환인 代替에너지 분야에서 민간기업인 호남정유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놓았다. 또한 湖油 기술연구소 磷酸型 연료전지 개발팀은 연구를 위하여 핵심 본체인 STACK은 호유가 맡고 요소기술에 해당되는 전극부분 개발등을 서울대, 포항工大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여 산학협동의 좋은 실례를 남겼다.

湖油가 금년초에 개발한 500W級(最高出力 635W) STACK은 美國이나 日本의 MW級에 비하면 아직 초보단계에 불과하나 순수 국내기술로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루어 냈다는 점이 돋보인다. 특히 高難度 선진기술인 900cm² 大型電極 제작기술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상용화를 위하여 2,500cm² 전극개발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湖油관계자에 의하면 이런 정도의 성과가 나오려면 일반적으로 10년이 소요된다고 하며 일단 500W級이 성공하므로써 금년중 10kW級 STACK 開發이 가능해졌고 93년말까지 40kW級 연료전지 시스템의 프로토타입(PROTOTYPE)을 개발, 곧 실용화 단계에 도달할 것이라고 한다.

연료전지는 연료와 酸化劑를 전지내부에 저장하지 않고, 필요시에만 電池內로 연료를 공급 발전하는 시스템으로 통상의 열기관과 비슷하다. 그러나 종래 대부분의 에너지 변환장치는 화학에너지→熱에너지→기계적에너지→電氣에너지의 단계를 거치나 연료전지에서는 반응물의 화학에너지가 열에너지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킬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에너지 생산방식이다.

湖油가 개발한 STACK은 지난 7월 13~15일까지 한국종합전시장(KOEX)에서 개최되는 代替에너지 우수개발과제 발표세미나 및 성과품전시회에서 실물이 전시되었고 7월 13일에는 이번 開發을 主導한 湖油 技術研究所 成俊鏞 理事(燃料工學博士)의 研究發表가 있었다.

湖南精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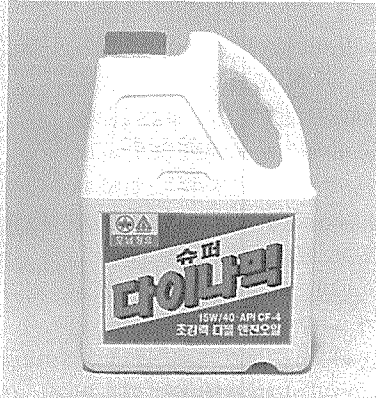
6ℓ 들이 윤활유 출하

P.P 용기에 산뜻한 디자인 돋보여

윤활유캔이 달라지고 있다. 종래 철제캔으로만 연상되던 윤활유용기에 P.P가 본격 사용되기 시작했다.

湖南精油(代表: 具斗會)는 7월초 自社의 최고급 디젤엔진용 윤활유제품인 슈퍼다이내믹의 6ℓ 들이를 출하하면서 용기를 P.P 製로 바꾸었다. 湖油관계자에 의하면 봉고型的 소형승합차의 경우 오일 교환시 6ℓ가 소요되는데 시중 제품들은 4ℓ, 1ℓ로 포장되어 사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으며 4ℓ 사용시 남은 오일의 보관이 어려운 점에 착안하여 同社의 고객서비스팀에 접수된 고객불만내용과 기술연구소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금번 출하에 이르렀다고 한다.

한편 湖油는 최근 환경과 자원재활용 문제에 일조를 하고자 철제보다 다소의 원가부담은 있지만 재활용이 가능한 P.P 용기에 담기로 했으며 뚜껑도 사용하기 편리한 플라스틱캡으로 만들고 손잡이도 개선했다. 또한 湖油관계자는 본 용기가 윤활유를 모두 사용한후 냉각수통 등으로 재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관 32층이 사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승진 및 인사이동, '92년도 정기 임금인상등에 대한 보고와 아울러 주택자금 융자규정 일부개정등에 대해 노사간에 진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京仁에너지

윤활유 판촉 캠페인 벌여

京仁에너지는 지난 6월 22일부터 27일까지 서울, 부산, 광주 등의 동사 주유소에서 윤활유 판촉 캠페인 행사

를 실시하였다. 최첨단 디젤엔진오일 '바닐러스 CF-4'의 신구발매에 때 맞추어 실시한 이번 행사에서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고용되어 판촉물 배포 및 신제품 홍보활동 등을 벌였다.

京仁에너지 仁川공장

황골유원지에 하계휴양소 설치

京仁에너지 인천공장은 여름휴가철을 맞이하여 지난 7월 16일 강원도 홍천군 마곡리 황골유원지에 하계휴양소를 설치하였다.

오는 8월 16일까지 한달간 운영될 이번 휴양소에는 임직원 및 가족들이 불편없이 지낼 수 있도록 제반 시설물들이 고루 갖추어져 있으며, 매일 수송편도 제공되고 있다.

雙龍精油

주유소 관리자 교육 실시

쌍용정유는 지난 7월 6일부터 9일까지 경기도 파주군에 있는 흥원연수원에서 주유소관리자 제8기과정교육을 실시했다. 34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에서는 처음으로 3C(친절, 청결, 편리) 시범 5개 주유소의 주유서비스 현장과 소장 및 판매원과의 대담 등을 비디오 테이프에 담아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방영했다.

여덟번째로 열린 이번 교육으로 총 278명이 이 교육을 이수했다.

雙龍精油

상표표시제 관련 현수막 제작

쌍용정유 홍보실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상표표시제 시행을 알리기 위해 현수막을 제작해 전국 계열 주유소에 배포했다.

'고품질의 쌍용정유 제품만 판매합니다'는 문구 및 에너지 절약 로고가 삽입된 이 현수막은 상표표시제 시행 주유소를 알아보기 쉽게 하고 동시에 에너지 소비절약 홍보를 위해 제작된 것이다.

雙龍精油 시흥저유소

24시간 출하체제 전환

쌍용정유 시흥저유소는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4시간 근무체제로 전환했다.

지금까지 2교대 16시간 근무체제를 3교대 24시간 근무체제로 변경함에 따라 인천저유소 출하시와 대비했

을때 수송비 절감효과와 수송효율 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雙龍精油

업무용 승용차
코란도패밀리로 변경

쌍용정유는 금년 하반기부터 구입하는 업무용 차량을 쌍용 코란도패밀리로 교체하고 있다.

차종변경은 지방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雙龍精油

'LPG 탱크로리 안전운행지침' 제작, 배포

쌍용정유 가스부는 LPG 탱크로리에 의한 화재예방을 위해 기사가 갖추어야 할 지침을 숙시시키기위해 '탱크로리 안전운행지침'을 제작, 전국의 LPG 탱크로리 보유충전소에 일제히 배포했다.

주요내용은 LPG 탱크로리에 대한 일상점검 및 운행 충전시 유의사항, 가스누설 및 화재발생시 긴급조치요령 및 비상연락체계 등에 관한것이다.

極東精油 대산공장

무재해 기록 100만인시 달성

極東精油 大山공장은 지난 6월 11일 03:00부로 무재해 100만인시를 달성했다. 이번 기록은 대산공장 700여 전종업원의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極東精油

정보 공유화 간담회

極東精油는 지난 6월 4일, 9일 양일간에 과장 31명, 부·차장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보 공유화 간담회를 실시했다.

京仁에너지

「스피드-9」과 판매·동반 광고업무 제휴

京仁에너지는 엔진오일 신속 교환점 업체인 미국의 『SPEED-9』과 판매 및 동반 광고업무를 제휴하였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선을 보인 엔진오일 신속교환점인 『SPEED-9』 1호점(송파구 삼전동 소재)은 자동오일 교환기 등의 자동화 시설을 구비하여 짧은 시간(오일교환시 총 9분 소요)내에 각종 서어비스를 제공하는 선진국 타입의 현대화, 고급화된 유틸유 전문 교환점이다.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SPEED-9』사는 현재 미국, 유럽 등에 만여개 이상의 체인점을 갖고 있는 유틸유 전문 교환점 회사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부서간의 효과적이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회사경영상의 문제와 종업원의 공통 관심사에 관한정보의 공유에 힘쓰기로 했다. 한편, 토요일휴가제 및 순환보직에 대한 사항들도 논의되었다.



들의 효율적인 업무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업무 개선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極東精油

여사원 교육 실시

極東精油는 지난 6월 15일부터 24일까지 2차에 걸쳐서 여사원 48명을 대상으로 성도어패럴 연수센터(경기도 용인)에서 여사원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서 바람직한 중견 여사원상 정립과 여사원간의 화합을 다지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정유산업 경제교육 실시

雙龍 李祥玟이사 초청

석유회회는 지난 7월 8일 상호 협회회의실에서 李祥玟이사(쌍용정유)를 강사로 초청, 석유산업 현황에 관한 경제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회원사 및 정유산업현황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협회직원

자원경제학회 정기총회
새회장엔 趙東成교수 선출



한국자원경제학회는 지난 6월 24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趙東成교수(서울대

경영대)를 제6대회장으로 선출했다. 부회장에는 申義淳교수(연세대)가 추천되었다.

석유회회인사

□ 퇴직

▲홍보실홍보과장 金鍾七(2급)
(7.6자)